

러시아 문서보관소 소장 사료에 비친 휴전협상 시기 공산 측 내부의 갈등

이재훈(동국대학교)

논문 요약

이 글에서는 러시아문서보관소 소장 한국전쟁 휴전협상 관련 사료를 통해 휴전 모색시기와 휴전협상 시기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으로 이어지는 공산 측 지도자들의 상호교섭과 인식 속에 노정되었던 이견과 갈등을 3국의 이해관계 충돌이라는 측면에서 규명하였다. 이견과 갈등의 대상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달랐다. 휴전을 모색하던 시기 공산 측 내부의 이견은 휴전의 필요성을 인식한 중국과 전쟁의 지속을 원하던 북한 사이에 있었다. 한편 휴전협상이 진행되면서 군사분계선 문제와 포로송환 문제에서 북한과 중국 사이에 또 다시 갈등이 불거졌다.

하지만 중국군이 참전한 이래 사실상 전쟁의 주체가 된 중국의 의지가 자신의 영토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조연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북한의 의지에 의해 포기될 리는 만무했다. 게다가 최종 결정권을 가진 소련마저 중국 측 입장을 지지하자 북한 측은 휴전협상의 결정과 과정에서 자신의 의지를 펼치는데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휴전협상은 중국과 소련의 이해관계라는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을 뿐, 북한의 이익은 애초부터 진지한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주제어 : 한국전쟁, 휴전협상,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 이견, 갈등

I. 서론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한반도에는 큰 변화가 찾아왔다. 어느 순간 해방이 주어졌고, 해방된 조국의 새로운 역사를 펼쳐보기도 전에 한반도의 정체성을 자신의 의지대로 규정하려는 강대국들 사이의 경쟁 틈바구니에 빠지게 되었다. 이후 한반도는 내·외부 세력이 충돌되어 펼쳐는 권력투쟁, 이데올로기 투쟁의 장이 되었으며, 그로 인해 마침내는 전쟁이라는 새로운 비극을 맞았다.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전쟁의 종단을 알리는 휴전협정이 체결되었고, 3년여 간 치열한 투쟁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또 다시 분단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

한국전쟁은 3년여 동안 지속되었지만 분단의 극복을 위한 전쟁은 전반기 1년 동안이었고, 나머지 2년여는 휴전협상의 기간이었다. 물론 2년여의 휴전협상 기간에도 전쟁이 계속되었지만, 그 전쟁은 이미 분단의 극복이라는 애초의 목표를 상실한 채 분단을 재차 고착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한국전쟁의 성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서의’ 전쟁의 기원과 전개과정을 연구하는 것만큼이나, ‘새로운 분단을 고착화하기 위한’ 휴전협상 과정에 대한 연구 역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국전쟁의 휴전협상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상당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다. 휴전협상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휴전회담의 전개과정¹⁾과 양측의 휴전협상 전략²⁾ 등에 집중되고 있으며, 휴전회담 의제들 중에서는 협상 시

1) 김계동, “한국전 휴전협상의 추진배경 연구: 전선의 안정과 정치적 결말 모색.” 『한국군사』 1권, 1995; 김진숙, “한국전쟁의 휴전회담에 관한 연구: 쌍방의 협상기법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2; 이병태, “6·25전쟁의 휴전회담 과정 고찰.” 『전쟁문학』 제21집, 2005; 김보영, “한국전쟁 휴전회담 연구.” 한양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8 등.
2) 신복룡, “한국전쟁 휴전협정의 비밀 협상에 관한 연구: 미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21집 2호, 1987; 김성희, “한국전쟁의 휴전회담에 관한 연구: 쌍방의 협상기법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2; 양쿠이송(楊奎松), “중국군의 정전협상 전략.”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Chen Jian, Mao's China and the Cold War. Univ. of North Carolina Press, 2001; 이병주, “共産軍側과 韓國戰爭 停戰會談 - 스탈린, 마오쩌둥의 協商指

가장 오랜 시간을 끌었던 포로송환 문제³⁾가 특히 집중적으로 조명되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들에서는 공통적으로 협상 양방 혹은 일방의 전략이나 의도만이 부각되고 있을 뿐, 협상 일방의 내부적 협의과정이나 이견 혹은 갈등의 구조 및 조정 등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일부 연구자들이 휴전협상과 관련한 공산 측의 내부적 이견과 갈등을 연구한 성과가 있기는 하지만,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사실을 주장하는 근거가 모호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⁴⁾

유엔 측의 경우에는 한국 및 유엔 참전국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사실상 미국이 단독으로 휴전협상에 임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부적 협의과정에 대한 연구는 의미가 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협상의 상대방인 공산 측(북한, 중국, 소련을 지칭한다)은 휴전의 모색과 휴전협상 진행과정 내내 3국 지도자들 간에 상호 긴밀한 협의채널을 유지했고, 휴전협상에도 북한과 중국 측 대표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공산 측 내부의 협상에 대한 발언권 혹은 영향력이 3국에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소련 측이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졌고, 중국 측이 휴전협상 전략을 수립했으며, 북한 측이 협상 실무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른바 수직적인 위계구조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3국의 발언권이 등가일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휴전협상에서의 수직적 위계구조가 협상전략을 수립, 결정 및 집행하는 3국간의 원만한 관계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었다. 전쟁과 휴전에 임하는 3국의 이해관계가 각자 상이한 상황에서 휴전협상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3국이 동일하게 인식하고 통일된 입장을 보이기를 바라는 것은 애초부터 무

리였으며, 몇몇 사안에서는 3국간에 상대적으로 심각한 이견과 갈등이 노정되기도 했다. 그리고 이러한 내부적 이견과 갈등은 휴전협상과정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공산 측 내부의 협의과정과 협의에서 표출된 이견과 갈등의 양상 및 조정에 대한 연구는 휴전협상 전반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글에서는 러시아문서보관소 소장 한국전쟁 휴전협상 관련 사료를 통해 휴전을 모색하고 휴전협상을 진행하던 시기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으로 이어지는 공산 측 지도자들의 상호교섭과 인식 속에 노정되었던 이견과 갈등을 3국의 이해관계 충돌이라는 측면에서 규명하고자 한다. 후견적 역할과 전쟁지원을 통해 다져진 동지의식(?)이 3국 각자의 핵심이익이 충돌할 때 어떻게 작동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II. 휴전 모색 시기 전쟁 지속 여부를 둘러싼 이견

한국전쟁에서 교전 양측의 휴전 모색은 전쟁 발발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그런데 전쟁 초기에는 어떠한 제안도 전쟁의 중단이라는 측면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없었다. 전선이 계속 변동하면서 전황의 유불리가 휴전조건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고, 유리와 불리가 교차하는 상황에서는 교전 양측이 동일한 시점에 휴전의 필요성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951년 6월부터 전선이 38도선 인근에서 고착되면서 교전 양측의 휴전 모색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전선이 고착된 상태에서, 양측에게는 휴전을 통해 방지할 수 있는 손해가 전쟁의 지속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크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공산 측의 경우 1951년 6월 초에 개최된 김일성과 마오쩌둥의 베이징회담에서 휴전 모색과 관련한 의미 있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 회동에서 무슨 이야

도와 目標의 차이점. 『戰史』 제5호, 2003; 기광서, “한국전 개입에 나타난 스탈린의 역할 실상.” 『軍史』 제63호, 2007; 沈志華, “소련과 한국전쟁: 러시아 비밀해제 당안 속의 역사 진상.” 『현대북한연구』 3권 1호; 기광서, “한국전쟁 휴전에 대한 공산측 지도부의 입장.” 『梨花史學研究』 제46집, 2013 등.
3) 조성훈, “미국 자료를 통해 본 휴전협상의 지연 요인 연구: 포로 문제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통권 79호, 2000; 여용덕, “휴전회담과 포로 교환.” 『전쟁문학』 제27집, 2007 등.
4) 양진삼(梁鎭三), “전쟁기 중국지도부와 북한지도부 사이의 모순과 갈등.”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박영실, “정전회담을 둘러싼 북한-중국 갈등과 소련의 역할.” 『현대북한연구』 14권 3호, 2011 등.

기가 오갔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같은 해 6월 5일 마오쩌둥이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⁵⁾, 6월 13일 스탈린이 마오쩌둥에게 보낸 전문⁶⁾, 그리고 11월 14일 마오쩌둥이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⁷⁾ 등을 통해 여타 현안들과 함께 휴전문제도 논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마오쩌둥이 6월 5일자 전문을 통해 스탈린에게 알린 바와 같이, 베이징에 있던 김일성과 가오강(高崗)은 6월 10일 모스크바로 출발하여 스탈린과 회동했고, 스탈린은 6월 13일자 전문을 통해 회동 결과를 마오쩌둥에게 통보했다. 스탈린의 통보에 따르면, 당시 회동한 3인은 “현 시점에서 휴전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인정”⁸⁾했다.

그런데 휴전을 모색하던 시기인 1951년 6월에 3국 사이에 휴전에 동의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일본 학자인 와다 하루키(和田春樹)는 “베이징 회동에서 김일성이 정전교섭에 분명히 동의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마오쩌둥이 김일성을 고강과 함께 모스크바로 보내 스탈린으로 하여금 설득하게 했다”⁹⁾라고, 중국 학자인 양진삼(梁鎭三)은 “북한지도부는 비록 공개적으로, 직접적으로 토로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전협상에 대해 약간의 경계심을 갖고 있었다”¹⁰⁾라고 보며, 한국 학자인 김보영은 “북한은 중국과는 입장이 달랐다. 북한은 휴전보다는 대규모 반격 작전을 구상하고 있었다. 중국군의 제5차 전역이 끝났을 때, 김일성은 5월 30일 평터 화이에게 편지를 보내, 6월 말 혹은 7월 중순 대규모 반격 작전을 건의했다. 6월 초 북경 회동에서 휴전문제도 김일성과 충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5) '1951년 6월 5일 마오쩌둥이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 АПРФ(러시아연방 대통령문서보관소), ф. 45, оп. 1, л. 339, л. 23.

6) '1951년 6월 13일 스탈린이 마오쩌둥에게 보낸 전문', АПРФ, ф. 45, оп. 1, л. 339, лл. 31-32.

7) '1951년 11월 14일 마오쩌둥이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 АПРФ, ф. 45, оп. 1, л. 342, лл. 16-19. 이 전문에서는 “김일성 동지가 급년 6월 베이징에서 휴전조건을 논의할 때”라고 명시하고 있다. (л.17.)

8) '1951년 6월 13일 스탈린이 마오쩌둥에게 보낸 전문', АПРФ, ф. 45, оп. 1, л. 339, лл. 31-32.

9) 와다 하루키 지음 서동만 옮김, 『한국전쟁』 창작과 비평사, 1999, pp. 220~221.

10) 양진삼, 앞의 논문, p. 613.

마오쩌둥은 스탈린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고강을 모스크바에 파견하면서 김일성을 동행시켰다”¹¹⁾라고 주장하는 반면, 러시아 학자인 토르쿠노프(Торкунов)는 “소련의 지도자는 전쟁의 중단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¹²⁾라고 주장하고 있고, 중국 학자인 양쿠이승(楊奎松)은 베이징 회동에서 “김일성 역시 전쟁을 계속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정전을 찬성하는 경향을 나타냈다”¹³⁾, “가오강과 김일성이 거둬들여 중국과 북한 측이 직면한 어려움을 설명한 뒤에야 스탈린은 결국 양보하면서, 당신들이 꼭 정전을 해야만 한다면 해도 된다면서 그것도 한번 해 볼만 한 일이고 아마 잘된 일인지 모른다고 했다”¹⁴⁾라고, 그리고 한국 학자인 박영실 역시 스탈린은 전쟁의 지속을 원했지만, “김일성과 가오강이 계속해서 북한과 중국이 직면한 어려움을 설명한 뒤에야 스탈린은 양보하였고, 회담 후 마오쩌둥에게 보낸 전문에는 간단하게 현재 정전을 한다면 좋은 일이라고 언급하였다”¹⁵⁾라고 적고 있다. 요컨대 와다 하루키, 양진삼, 김보영은 6월 초 베이징 회동 당시 김일성이 휴전을 긍정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는 반면, 토르쿠노프, 양쿠이승, 박영실 등은 김일성과 마오쩌둥은 휴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스탈린이 휴전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당시 북한의 입장과 관련하여 어느 연구자의 주장이 옳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51년 9월 10일 북한 주재 소련대사였던 라주바예프(Разувасв)가 모스크바로 보낸 보고서(이하 「라주바예프 보고서」)¹⁶⁾는 당

11) 김보영, 앞의 논문, p. 26.

12) A.B. Торкунов, 'Загадочная война: корейский конфликт 1950-1953 годов'(수수께끼의 전쟁: 한국 분쟁 1950~1953년), М., РОССПЕН, 2000, с. 162.

13) 양쿠이승, 앞의 논문, p. 537.

14) 위의 논문, p. 538.

15) 박영실, 앞의 논문, p. 60.

16) '휴전회담 관련 정치동향과 조중 상호관계', (1951년 9월 10일 라주바예프 작성), 출처불명. 이 보고서와 관련하여 당시 북한 주재 소련대사관 1등서기 페투호프(Петухов)가 보낸 '조선의 휴전회담(보고)'에 “휴전회담 관련 정치동향 및 조중 상호관계는 장관님께 보내는 특별보고서에 언급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위의 문건은 진본으로 판단된다 : '1951년 9월 페투호프가 보낸 보고서', АВПР(러시아연방 대외정책문서보관소), ф. 0102, оп. 7, п. 32, л. 65, л. 55 참조.

시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조선인들에게 말리크(Малик) 동지의 연설¹⁷⁾은 휴전을 체결하고자 하는 중국의 명백한 의지가 표명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베이징 방문 결과 김일성은 이러한 [중국의 - 필자 첨가] 의도에 크게 낙담했다”고 한다. 김일성이 중국의 의도에 크게 낙담했다는 보고서의 언급은 6월 초 중국을 방문해 마오쩌둥과 회동하기 전까지 김일성은 휴전을 결코 원하지 않았고, 베이징회동 과정에서 마오쩌둥이 거론한 휴전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6월 23일 말리크의 연설을 북한 측이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볼 때, 북한 측은 소련 역시 애초에는 휴전의 의사가 없었지만, 마오쩌둥의 휴전 의지에 이끌려 휴전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보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이 보고서에 따르면, “말리크 동지의 연설이 있고 며칠 동안 북조선 언론과 여타 선전기관들이 그의 제안이 지니는 의미를 설명하지도, 그것을 논평하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이 역시 북한 측이 최소한 베이징회동이 있고 일정한 시간이 흐를 때까지도 여전히 휴전을 바라지 않았고, 베이징회동 및 김일성, 가오강, 스탈린의 모스크바회동 결과와 이에 따른 소련의 휴전 제안 움직임에 불만을 가졌음을 알려주는 대목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측은 한반도에서의 휴전을 제안하는 말리크의 연설에 며칠 동안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요컨대 「라주바예프 보고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북한은 최소한 1951년 6월 말까지는 휴전을 바라지 않았다.

그렇다면 당시 시점에서 휴전에 대한 중국과 소련의 입장은 어땠을까? 우선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자들 모두가 동일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양쿠이승은 1951년 5월 하순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에서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38도선이라도 힘써 지켜서 전쟁을 중단하자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오쩌둥도 이러한 의견에 주목하고 있었다”¹⁸⁾라고 기술하고

17) 1951년 6월 23일 유엔 주재 소련대표 말리크가 라디오 방송프로를 통해 한 연설이다. 말리크는 이 연설에서 “38도선으로부터 분쟁당사자들의 상호철수와 정전대화의 실시”를 제안했다: Правда (프라브다) 1951년 6월 24일 참조.

있고, 양진삼은 『聶榮臻回憶錄』을 인용하면서 “1951년 5월 하순, 마오쩌둥은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를 개최하여, ‘협상하면서 전투하여 유리한 조건에서 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¹⁹⁾라고 적고 있으며, 첸지안(Chen Jian)은 “중국지도부는 중국과 북한의 총체적 승리를 축소시키더라도 전쟁을 종결짓기를 원하기 시작했다”²⁰⁾라고 주장하고 있다. 토르쿠노프 역시 동일한 견해를 보인다. 그는 “1951년 여름 중국과 북한은 전선의 어려운 상황과 인적 물적 피해를 겪으면서 적과의 교섭을 보다 더 지향하게 된다”²¹⁾라고 적고 있다. 한편 기광서는 “중국 측도 자국군대의 막대한 피해와 함께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잃으면서 조심스럽게 휴전을 모색했다”²²⁾라고, 김보영은 “중국은 휴전을 받아들일 생각이었다. 중국이 휴전을 모색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군사적 요인 때문이었다”²³⁾라고 주장하면서 중국이 휴전을 받아들일 생각이었다고 단언하고 있다.

당시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필자의 견해도 동일하다. 중국 학자들이 5월 하순의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협상’의 방침이 결정되었음을 증명하고 있고, 「라주바예프 보고서」 역시 휴전을 지향한 중국의 명백한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1951년 1월 중순 이후 중국 측이 유엔군의 반격작전과 제4, 5차 전역 과정에서의 사실상의 패배와 그 결과로서의 38도선 인근으로의 후퇴로 인한 승리에 대한 자신감 상실을 겪으면서 전쟁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련의 입장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간에 상당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양쿠이승과 박영실은 6월 13일 김일성, 스탈린, 가오강 회동에서 가오

18) 양쿠이승, 앞의 논문, p. 536.

19) 양진삼, 앞의 논문, p. 613.

20) Chen Jian, “The Armistice That was not Beijing’s First Choice: Revisiting China’s Strategies to End the Korean War.” 한국전쟁 정전60주년 국제학술대회(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13.7.27.), p. 143.

21) A.B. Торкунов, Там же, с. 162.

22) 기광서, “한국전쟁 휴전에 대한 공산측 지도부의 입장.” p. 146.

23) 김보영, 앞의 논문, p. 26.

강이 38도선을 경계로 정전담판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스탈린은 “중국이 아주 잘 싸우고 있는데, 왜 정전을 하려고 하는가, 계속 싸울 것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미국이지 우리가 아니다.”라고,²⁴⁾ 토르쿠 노프는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소련의 지도자는 전쟁의 중단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²⁵⁾라고 서술하면서 소련이 휴전협상 실시에 긍정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기광서는 “휴전이 필요한 단계이기는 하나 굳이 공산 측이 밀리는 인상을 주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스탈린 - 필자 주]의 본심이었다”²⁶⁾라고 주장하고 있고, 김보영은 “6월 초 북경 회동에서 휴전문제로 김일성과 충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마오쩌둥은 스탈린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가오강을 모스크바로 파견하면서 김일성을 동행시켰다. 스탈린으로 하여금 김일성을 설득하게 하여 휴전을 진행시키려는 의도였다”²⁷⁾라고 하면서 6월 초 시점에서 스탈린이 휴전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듯 연구자들 간에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소련의 입장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1951년 6월 13일 김일성, 스탈린, 가오강 회동에서 스탈린의 휴전에 대한 동의가 있기 전의 소련의 입장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1950년 9월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1950년 9월 말 미국 측(랭 카스터)은 유엔 주재 소련대표부 차랍킨(Чараткин)과 회동을 갖고 유엔 주재 소련대표 말리크(Малик)와 애치슨의 보좌관 중 1명 혹은 미국 대사 중 1명의 “조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제안하면서, “그러한 회동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며, 이후의 협상으로 평화에 이르는 길을 찾게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²⁸⁾ 이에 스탈린은 말리크의 회동에 동의한다는

24) 양쿠이승, 앞의 논문, p. 537; 박영실, 앞의 논문, p. 60.

25) A.B. Торкунов, Там же, с. 162.

26) 기광서, “한국전쟁 휴전에 대한 공산측 지도부의 입장.” 앞의 논문, p. 146.

27) 김보영, 앞의 논문, p. 26 참조.

28) ‘1950년 9월 27일 소련 외무상(비신스키)이 소련 외무성 제1부상(그로미코)에게 보낸 전문’, АПРФ, ф. 3, оп. 65, д. 827, лл. 86-87.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면서 “미국이 조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문제에 진일보한 것이 보일 경우, 회동에서 거론되는 문제들을 신중히 고려한 후 차기 회동에서 답변을 주겠다고 말하라”고 지시했다.²⁹⁾ 하지만 당시 회동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회동이 있었다면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최소한 러시아 사료 상으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유엔군이 38도선을 넘으면서 당시 개최되고 있던 유엔총회에서 사회주의권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공산 측의 애초 주장인 “교전 쌍방의 즉각적인 전투행위 중단, 조선인들에 의한 조선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군의 철수, 총선 실시”³⁰⁾ 등을 다시금 제기한 것으로 보아, 설혹 회동이 있었다 해도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어떻든 유엔군의 38도선 이북 진출은 중국의 참전을 불러왔고, 이로 인해 한반도의 전황은 다시 한 번 요동치게 된다. 러시아 사료에 따르면, 이 시기 중국과 소련 사이에 휴전의 모색과 관련한 대화가 오고간다. 1950년 12월 7일 중국 주재 소련대사 로신(Рошин)이 스탈린에게 전문을 보냈다. 전문에는 인도, 영국, 스웨덴 대표 및 유엔사무총장 등이 중국 측에 휴전 조건을 문의했고, 중국 측은 ‘조선에서 모든 외국군의 철수, 타이완 해협과 타이완 영토로부터의 미군 철수, 조선 문제는 조선인 스스로 해결, 중국 대표의 유엔 참가, 일본과의 강화조약 준비를 위한 4대강국 외무장관회의 소집’ 등을 휴전 조건으로 내세울 예정이라고 하면서 소련 측의 입장을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³¹⁾ 이에 스탈린은 로신에게 보낸 전문을 통해 중국 측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우리는 조선에서의 군사행동을 종결하기 위해 동지가 제시한 조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우리는 서울이 해방되기 전까지는 중국이 자기의 카드를

29) ‘1950년 9월 28일 소련 외무성 제1부상이 소련 외무성에게 보낸 전문’, АПРФ, ф. 3, оп. 65, д. 827, л. 97.

30) Правда(프라브다) 1950년 10월 2일.

31) ‘1950년 12월 7일 로신이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 АПРФ, ф. 45, оп. 1, д. 336, лл. 17-19.

모두 내보이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판단한다.³²⁾

공산 측이 서울을 점령한 후 유리한 조건에서 휴전교섭에 임하라고 제안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듯하다. 하지만 같은 날 스탈린은 뉴욕에 있는 소련대표단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문을 발송했다.

현재 미군이 패퇴하고 있고, 미국 측에서 총체적인 패배를 면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조선에서의 휴전을 보다 빈번하게 제기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휴전에 대한 귀하의 제안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소련대표단은 다음을 포함시켜 제안해야 한다.

1. 조선에서 모든 외국군의 철수.
2. 조선 인민 스스로 조선 문제 해결.³³⁾

이 전문을 보면 스탈린은 당시 수세에 몰려 있던 미국 측이 한반도의 평화를 진정으로 원한다기 보다는, 단지 시간을 벌기 위해 다급하게 휴전을 제의한다고 여기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측의 휴전 제안을 불순한 의도로 여겼던 것이다. 하지만 자신과 사회주의 국가들을 ‘평화에 호세력’으로 선전하고 있던 소련의 입장에서 전황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휴전을 희망하는 국제사회의 여론과 행동을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전쟁의 지속을 추구할 수만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탈린은 중국 측과 소련대표단으로 하여금 미국 측이 받아들이기 곤란한 휴전 조건을 제시하도록 한 것이었다. 요컨대 1950년 12월 시점에는 스탈린은 휴전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러한 스탈린의 생각은 전황이 변화되면서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1951년 1월 말이 되면서 유엔군은 후퇴를 멈추고 재차 반격의

32) '1950년 12월 7일 소련외무성 제1부상이 로신에게 보낸 전문', АПРФ, ф. 45, оп. 1, д. 336, лл. 20-21.

33) '1950년 12월 7일 소련외무성 제1부상이 소련 외무상에게 보낸 전문', АПРФ, ф. 3, оп. 65, д. 828, л. 24.

기회를 잡았으며, 이후 유엔군의 재반격으로 인해 전선은 38도선 인근에 형성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같은 해 5월 26일 과거 소련 주재 미국대사를 역임했던 케넌(Kennan)이 ‘양국 간의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말리크와의 회동을 당시 소련 측 교체대표였던 짜랍킨(Царапкин)에게 서한을 통해 요청했고, 소련 측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5월 31일과 6월 5일 양자 간 회동이 성사되었다.³⁴⁾ 하지만 5월 31일 회동에서는 말리크의 한국전쟁에 관한 논의 회피로 인해 본질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신복룡은 그 이유를 “두 사람의 대화가 본국의 비밀 요원들에 의해 盜聽되거나 녹음되는 것이 두려웠고 또 구체적인 것은 본국의 훈령을 받은 뒤에 개진하기 위한”³⁵⁾ 것이라는 케넌의 회고를 소개하고 있는데, 필자 역시 말리크가 ‘본국의 훈령을 받은 뒤에 개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한 것으로 보는데 동의한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케넌이 말리크와의 회동을 성사시키기 위해 짜랍킨에게 서한을 보낸 날짜가 5월 26일이라는 점이다. 회동을 제안한 날과 실제 회동한 날 사이에 약 5일의 간격이 있다는 것이다. 짜랍킨이 케넌의 서한을 받고 모스크바에 보고하지 않았을 리 없다고 추정한다면, 모스크바 입장에서 한국전쟁 휴전문제는 당시의 5일이라는 기간만으로는 결정이 불가능할 만큼 복잡한 사안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요컨대 이 시기에는 스탈린의 머릿속에 휴전이라는 개념이 확고하게 자리 잡지는 않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하지만 6월 5일 회동에서는 상황이 변화한다. 이 회동에서 케넌은 회담 참가국, 회담의제, 휴전감시위원회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안을 제시하면서 휴전회담에 소련 측이 참여할 것을 요구했고, 말리크는 한국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면서 전쟁당사자인 북한과 중국을 상대로 회담하도록 요구했다.³⁶⁾ 6월 5일

34) 양자의 회동과 관련한 러시아 측 사료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하 양자의 회동에 관해서는 신복룡, 앞의 논문, pp. 265~266을 참조했다.

35) 신복룡, 위의 논문, p. 265.

36) 위의 논문, p. 265.

회동을 통해 미국 측이 휴전을 바라고 있다는, 그리고 소련 측은 휴전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양자 사이에 교환되었던 것이다. 물론 이 회동 이전에 동 사안과 관련하여 모스크바로부터 훈령이 내려왔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리고 그 훈령에는 최소한 1951년 6월 초 시점에 소련이 휴전에 부정적이지만은 않았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적혀 있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교전 양측이 휴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접촉하던 1951년 5월 말 ~ 6월 초 시점에서 북한은 전쟁의 지속을 원했고, 중국과 소련은 휴전을 원했다. 하지만 1950년 10월 중국이 참전하면서 전쟁은 이미 김일성의 전쟁이 아니라 마오쩌둥의 전쟁이 되었고, 김일성은 그(마오쩌둥)의 전쟁의 보조자로 전략한지 오래였다. 따라서 김일성의 전쟁 지속 의지는 중국과 소련 지도자의 휴전 의지에 매몰될 수밖에 없었다.

어떻든 1951년 6월의 베이징회동과 모스크바회동을 통해 공산 측 내부에서 휴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제 공산 측은 유리한 조건에서 휴전을 성립시키기 위한 치열한 수 싸움을 전개하게 된다. 러시아 사료에 따르면, 마오쩌둥은 휴전협상의 주도권을 담보하기 위해 6월 13일 공산 측의 휴전 제안을 미국 측에 전달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당시 모스크바에 있던 김일성과 가오강에게 다음과 같은 전문을 보냈다.

..... 우리가 먼저 휴전을 제안하는 것은 적의 사기를 높일 뿐이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

1. 적이 제안할 때까지 기다린다.

2. 소련정부가 미국정부에 휴전에 대해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으로는 소련정부가 문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이 휴전문제를 제기하면

이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2개의 방법을 동시에 추진할 수도 있다.³⁷⁾

37) '1951년 6월 13일 마오쩌둥이 가오강과 김일성에게 보낸 전문', АПРФ, ф. 45, оп. 1, л. 339, л. 58.

당시 김일성과 가오강은 이 같은 모택동의 제안을 스탈린과 논의했고, 스탈린에게서 소련 측이 먼저 미국 측에 휴전 문제를 제기한다는 약속을 받아냈다.³⁸⁾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6월 23일 유엔 주재 소련대표인 말리크가 뉴욕에서의 라디오방송을 통해 미국 측에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 중지 필요성을 제기했고, 미국 측이 이에 긍정적인 답변을 줌으로써 휴전협상의 막이 올랐다.

III. 휴전 협상 시기 군사분계선과 송환포로 문제를 둘러싼 갈등

휴전과 관련한 공산 측 내부의 이견과 갈등은 휴전모색 시기뿐 아니라, 휴전협상 과정에서도 표출되었다. 휴전협상 의제 각각에 대한 3국의 이해관계가 달랐고, 3국 간 이해관계의 조정이 대부분의 경우 특정국(특히 북한)의 희망과 이익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공산 측 내부의 이견은 휴전협상 내내 여러 사안에서 발생했지만, 휴전협상 의제 중 협상 양측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제2의제(군사분계선)와 제4의제(포로송환)에서 특히 격렬하게 전개되었다.³⁹⁾

1. 군사분계선 협상

제2의제(군사분계선) 협상은 1951년 7월 26일부터 시작되었다. 협상 양

38) '1951년 6월 25일 스탈린이 마오쩌둥에게 보낸 전문', АПРФ, ф. 45, оп. 1, л. 339, л. 78. 전문에는 "귀하(마오쩌둥)는 말리크의 연설을 통해 휴전 문제의 제기과 관련한 우리의 약속이 이행되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39) 당시 합의되었던 협상의제는 다음과 같다. ① 협상의제의 채택 ② 한국에서의 적대행위 정지를 위한 기본조건으로서, 양측이 비무장지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군사분계선을 설정 ③ 정전 및 휴전에 관한 조항 수행을 감독하는 기관의 구성, 권한 및 기능을 포함한 한국에서의 휴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의 ④ 포로에 관한 협의 ⑤ 양측의 관계 제국정부에 대한 건의.

측은 군사분계선 설정 문제를 협상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담 준비 단계부터 이미 군사분계선 협상을 통해 달성할 목표와 원칙을 정해놓고 있었다. 공산 측의 목표는 6월 23일 말리크가 라디오방송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38도선을 분계선으로 설정하는 것이었다.⁴⁰⁾ 따라서 공산 측은 회담의 성격과 범위가 결정되는 의제 채택과정에서 이미 38도선을 분계선으로 설정하는 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고, 그로 인해 협상 양측은 한차례 논란을 겪은 바 있었다.⁴¹⁾

그런데 38도선을 분계선으로 설정한다는 공산 측의 공식적 목표가 있었음에도, 제2의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겨우 하루가 지난 7월 27일 마오쩌둥은 김일성에게 “미국 측이 기존 전선을 분계선으로 인정할 것을 주장한다면, 중국 측은 미국 측에 양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⁴²⁾고 전했다. 그러면서 마오쩌둥은 이에 대한 북한 측의 견해를 알려줄 것을 김일성에게 요청했다. 이에 김일성은 “군사분계선의 양보는 북한 측에게 심각한 정치적 타격이며, 미국이 점령한 북한 지역이 매우 큰 경제적 및 전략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그러한 양보는 불가능하다”고 마오쩌둥에게 지체 없이 답변을 보냈다.⁴³⁾ 이후 미국 측이 기존 “전선의 위치보다 30~50km 북쪽에 분계선을 설정”⁴⁴⁾하자는 요구를 제기하자, 마오쩌둥은 7월 28일 리커농(李克農)에게 보내는 전문을 통해 중국 측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38도선을 분계선으로 계속 주장할 것임을 김일성에게 통보했다.⁴⁵⁾

군사분계선 협상과 관련하여 7월 27일과 28일 양일에 있었던 김일성과 마오쩌둥 간의 전문 교환은 양자 간 이견의 표출, 이익의 충돌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 측에 양보를 해서라도 가능한 한 조속히 전쟁을 종식시킴으로써 끝없이 이어지는 대북 원조의 부담에서 벗어나려는 중국 측 입장과 국토완정의 의지는 고사하고 전쟁 이전의 영토마저 잠식당하면서까지 굴욕적인 타협을 할 수는 없다는 북한 측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한 경우였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 측이 중국 측의 희망과는 달리 기존 전선의 북쪽 후방에 분계선을 설정하자는 “광포하고 근거 없는”⁴⁶⁾ 주장을 했기 때문에 김일성과 마오쩌둥의 견해차는 더 이상 표면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협상에서 미국 측이 기존 전선을 분계선으로 설정하자고 제안했다면, 중국 측이 그와 같은 미국 측의 제안을 받아들일도록 북한 측을 압박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

알려진 바와 같이, 휴전협상 공산 측 대표단은 북한과 중국 대표로 구성되었고 북한 측 남일(南日)이 대표단장의 역할을 수행했지만, 휴전협상의 실질적 지휘자는 마오쩌둥이었으며, 그는 리커농과 차오관화(喬冠華) 등을 개성으로 파견해 회담전략을 수립하고, 회담 내용과 과정을 조종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요컨대 휴전협상을 이끄는 실질적 주체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 측이었다. 그런데 앞서 소개한 「리주바예프 보고서」에 의하면, 휴전협상 초기 “중국 측은 자신의 입장을 언제나 적시에 북한 측 입장과 일치시키려고 노력한 것은 아니었으며, 이는 자주 북한 측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⁴⁷⁾고 한다. 또한 “베이징에서 개성으로 특별히 파견된 중국동지들이 현장에서 남일의 사업을 지도”⁴⁸⁾ 했는데, “후에 남일은 미국 측과의 관계에서 극단적인 유연성과 양보를 보인 리커농과 몇몇 사안에서 견해를 달리했다”⁴⁹⁾고도 한다. 이는 중국 측이

40) 1951년 7월 3일 마오쩌둥은 스탈린에게 보내는 전문에서 쌍방 군사대표회담에서 공산 측이 제기할 5개 주요 사안을 언급하면서 쌍방의 육해공군이 ‘38도선’에서 남북 양쪽으로 10km씩 철수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고(‘1951년 7월 3일 마오쩌둥이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 АИРФ, ф. 45, оп. 1, л. 339, л. 8.), 같은 날 스탈린은 마오쩌둥의 ‘38도선’ 제안에 동의한다는 답신을 보냈다(‘1951년 7월 3일 스탈린이 마오쩌둥에게 보낸 전문’, АИРФ, ф. 45, оп. 1, л. 339, л. 11).

41) 휴전협상 의제채택 과정에서의 군사분계선 설정 문제에 대해서는 김보영, 앞의 논문, pp. 55~63 참조.

42) ‘휴전회담 관련 정치동향과 조중 상호관계’, 앞의 문서.

43) ‘휴전회담 관련 정치동향과 조중 상호관계’, 위의 문서.

44) Record of Events, Eleventh Session, Conference at Kaesong, Korea, on the Armistice Proposal(1951.07.27.), United Nations Command, Korean Armistice Negotiation.

45) ‘1951년 7월 28일 마오쩌둥이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 АИРФ, ф. 45, оп. 1, л. 340, лл. 114~115.

46) ‘1951년 7월 28일 마오쩌둥이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 АИРФ, ф. 45, оп. 1, л. 340, л. 114.

47) ‘휴전회담 관련 정치동향과 조중 상호관계’, 앞의 문서.

48) ‘1951년 9월 페투호프가 보낸 보고서’, АВПР, ф. 0102, оп. 7, п. 32, л. 65, л. 28.

49) ‘휴전회담 관련 정치동향과 조중 상호관계’, 앞의 문서.

북한 측을 배제하고 휴전협상에 독단적으로 임했음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어떻든 이러한 일련의 정황은 당시 중국 측이 북한 측을 배제한 채 분계선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북한 측에 강요할 수도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휴전 모색 시기에 자국의 핵심이익인 중국의 유엔가입과 타이완해협에서의 미군 철수를 휴전조건에서 스스로 배제⁵⁰⁾시키면서까지 조속한 휴전을 원하는 중국 측 입장에서 자국의 이익과는 크게 관련 없는 북한의 영토적 이익을 위해 미국 측과 한없이 논쟁을 지속하는 것이 의미가 클 수는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중국 측은 분계선 문제에서 일정하게 양보함으로써 휴전교섭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시키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이다.

이후 군사분계선 설정을 둘러싸고 협상 양측 간에 공방이 계속되었으며, 그 외중에 공산 측이 목표로 하는 분계선에 대한 논의는 38도선으로부터 7월 27일 마오쩌둥이 이미 김일성에게 제시했던 기존 전선으로 변경되었고, 10월 31일 공산 측은 “일부 수정이 가해진 현재의 접촉선에서 군사행동을 중지”⁵¹⁾하자고 제안했으며, 11월 14일부터 19일 사이에 “현재의 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하는 입장을 확정했다.⁵²⁾

그런데 현재의 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한다는 입장이 확정된 11월 19일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한반도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북한정부가 유엔총회와 유엔안보리에 보내는 호소문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논의 결과 소련 및 중국과의 협의 없이 북한정부가 자의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호소문 제출 시도를 연기시켜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 결정은 즉각 북한 주재 소련대사 라주바예프에게 전달되었다.⁵³⁾ 하지만 소련 측의 만류가 북한 측에 전달되기 전에 북한 측은 이미 이 호소문을 유엔에

50) '1951년 6월 13일 마오쩌둥이 가오강, 김일성에게 보낸 전문', АПРФ, ф. 45, оп. 1, д. 339, лл. 59-60.

51) '1951년 10월 31일 마오쩌둥이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 АПРФ, ф. 45, оп. 1, д. 342, л. 158.

52) '1951년 11월 14일 마오쩌둥이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 АПРФ, ф. 45, оп. 1, д. 342, л. 17; '1951년 11월 19일 스탈린이 마오쩌둥에게 보낸 전문', АПРФ, ф. 45, оп. 1, д. 342, л. 23 참조.

53) '1951년 8월 29일 스탈린이 마오쩌둥에게 보낸 전문', АПРФ, ф. 3, оп. 65, д. 829, л. 45.

제출했고, 라주바예프는 이로 인해 모스크바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았다.⁵⁴⁾

물론 전쟁이 지속됨에 따라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첫 단계로서 조선에서의 전투행동 즉각 중지, 조선인민군 총사령부와 중국인민지원군 사령부 대표들의 공정하고 현명한 제안에 따른 전선으로부터의 군대 철수와 2km의 비무장지대 설치, 조선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 철수, 조선전쟁 연장에 대한 단호한 책임 추궁, 조선 양민들에게 야만적 만행을 조직하고 자행한 자들의 처벌”⁵⁵⁾ 등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송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 측이 소련, 중국 측과 논의하지 않은 채 휴전협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의 호소문을 자의적으로 보냈다는 데 있다. 북한 측이 이러한 문제를 소련, 중국 측과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을 리는 만무할 것이다. 왜냐하면 모스크바, 베이징, 평양은 당시 휴전협상과 관련된 거의 모든 사안을 공유했고, 그러한 공유를 통해 3국의 통일된 협상전략을 생산해 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북한 측은 자의적으로 호소문을 보냈다. 이는 아마도 당시 시점에서 북한이 군사분계선 설정 문제와 관련하여 소련과 중국 측에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당시 북한 측은 “최대한 신속한 휴전협정의 체결을 희망”하지만, 자국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휴전조건이 강요”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었다.⁵⁶⁾ 하지만 휴전협상 과정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회담이 군사행동 중지에 대한 회담이고, 적이 38도선 이북의 동부 산악지대와 38도선 이남의 서부 저지대에 대한 즉각적인 교환을 결코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 전선에서의 군사행동 중지를 제안하고, 군사

54) '1951년 11월 20일 그로미코가 라주바예프에게 보낸 전문', АПРФ, ф. 3, оп. 65, д. 829, лл. 47-48.

55) '1951년 11월 21일 라주바예프가 그로미코에게 보낸 전문', АПРФ, ф. 3, оп. 65, д. 829, лл. 182-183.

56) '1951년 9월 페투호프가 보낸 보고서', АВПР, ф. 0102, оп. 7, п. 32, д. 65, лл. 54-55.

분계선으로서의 38도선 문제와 외국군 철군 문제 제기를 유예”⁵⁷⁾한다는 (소련 측이 동의한) 중국 측의 휴전전략은 비록 마오쩌둥이 “김일성 동지가 금년 6월 베이징에서 휴전조건을 논의할 때 이 문제에 대해 동일한 견해를 견지했다. 이번에도 그의 동의하에 이를 수행했다”⁵⁸⁾고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국의 핵심적 이익인 영토적 이익과 위신을 손상시키는 휴전조건외의 강요를 거부하는 북한 측의 의지에 반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호소문 발송 사건은 전쟁 지속으로 인해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고 있던 북한 측이 조속한 종전을 촉구하고자 단행했던 것이 아니라, 군사분계선 협상에서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소련과 중국 측이 미국 측에 양보하여 군사분계선을 기존 전선으로 설정하는 것에 불만을 품은 북한 측이 이러한 불만을 표출하고 자국의 이익에 대한 소련, 중국 측의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 단행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

2. 포로송환 협상

1951년 12월 11일 제4의제인 포로송환 협상을 위한 회의가 시작되었다. 이 협상은 비교적 간단하게 타결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공산 측 역시 “이 문제는 의견의 일치를 이루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⁵⁹⁾으로 낙관하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 측이 일대일 교환, 자원송환 원칙을 들고 나와 공산 측의 전원교환, 일괄송환 원칙과 맞서면서 협상은 장기화되었다.

포로송환 협상과 관련하여 공산 측의 이견이 표출된 발단은 미국 측이 195

57) '1951년 11월 14일 마오쩌둥이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 АПРФ, ф. 45, оп. 1, л. 342, л. 17.

58) '1951년 11월 14일 마오쩌둥이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 АПРФ, ф. 45, оп. 1, л. 342, л. 17. 앞서 본 바와 같이, 1951년 7월 27일 마오쩌둥이 현 전선을 분계선으로 설정하자고 제안했을 때, 김일성이 이를 즉각 거부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6월 베이징회담에서 현 전선을 분계선으로 설정하자는 마오쩌둥의 제안에 김일성이 실제로 동의했는지, 그리고 동의했다면 그 동의가 김일성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59) '1951년 11월 14일 마오쩌둥이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 АПРФ, ф. 45, оп. 1, л. 342, л. 18.

2년 7월 13일 제104차 본회담에서 ‘한국인 76,600명, 중국인 6,400명 등 모두 83,000명의 포로가 송환될 것’⁶⁰⁾이라고 한 부분이었다. 미국 측의 이 제안에 따르면, 송환대상 인원 가운데 한국인 포로는 총원 13만9천 여 명 가운데 약 55%(북한 출신 포로만 산정하면 약 64%)가 송환을 희망한데 비해, 중국지원군 포로는 2만 여명 가운데 약 32%만이 송환을 희망한 것이었다. 이 제안이 중국 측을 격분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7월 15일 마오쩌둥은 김일성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문을 보냈다.

..... 금년 7월 14일자 귀하의 전문을 받았다.

이 사안에 대해 이틀 동안 검토한 후 우리 동지들 모두는 적의 흉포한 폭격을 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도발적이고 기만적이며, 사실상 어떠한 양보도 의미하지 않는 적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⁶¹⁾

이 전문에 의하면, 7월 14일에 김일성이 마오쩌둥에게 전문을 보낸 것으로 되어 있다. 유감스럽게도 김일성이 보낸 7월 14일자 전문은 현재 찾을 수 없다. 하지만 마오쩌둥이 보낸 전문을 통해 김일성이 보낸 전문의 내용을 유추할 수는 있다. 마오쩌둥은 김일성이 보낸 전문을 검토한 후 “적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김일성에게 회답했다. 이는 김일성이 7월 13일 미국 측이 제안한 포로 숫자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했거나, 최소한 이를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 문의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일성이 먼저 마오쩌둥에게 이와 같은 내용의 전문을 보낸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미국 측 제안을 받아들여서 전쟁을 되도록 빨리

60) Record of Events, 104th Session, 78th Meeting at Pan Mun Jom, Military Armistice Conference 1952.07.13.

61) '1952년 7월 18일 마오쩌둥이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 АПРФ, ф. 45, оп. 1, л. 343, л. 72.

중단시키고 싶다는 의사의 표명이었다. 그런데 김일성은 7월 16일 전문을 통해 마오쩌둥에게 “우리는 현재 상황에 대한 귀하의 분석이 옳다고 생각한다”⁶²⁾라고 알리면서, 같은 날 스탈린에게도 적의 폭격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 대해 마오쩌둥 동지와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⁶³⁾라고 전했다. 그리고 같은 날 스탈린은 마오쩌둥에게 “휴전협상에서의 귀하의 견해가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한다. 김일성 동지도 귀하의 견해에 동의하고 있다는 소식을 오늘 평양으로부터 들었다”⁶⁴⁾는 전문을 보냈다. 이것으로 북한과 중국 간의 송환 대상 포로 문제에 대한 이견이 해소된 듯 했다.

하지만 이견은 해소된 것이 아니었다. 8월 20일 모스크바에서 스탈린과 저우언라이(周恩來)의 회담이 있었다. 회담의 주목적은 중국의 제1차5개년 계획, 중국에 대한 소련의 군사장비 이전 등이었다. 이 회담에서 저우언라이는 포로송환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과 중국 사이에 여전히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관련 대화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스탈린이 마오쩌둥은 포로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양보할 생각인지 아니면 자신의 주장을 견지할 것인지 질문한다.

저우언라이가 이 문제에 대한 조선 동지들과의 견해차를 간략하게 설명한다. 미국 측은 8,300명의 포로 송환에 동의했고, 조선 측은 이 제안에 동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그들은 미국 측이 교활한 게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했다. 8,300명 중에서 중국인이 6,400명이고, 나머지가 조선인이다. 미국 측은 13,600명의 중국지원군을 더 송환해야 함에도, 미국 측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조선인 7,6000명의 송환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그들이 중국 측과 조선 측을 이간질하는 선동적 게임을 하고 있음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다.

스탈린이 조선인 전쟁포로가 몇 명인지 묻는다.

저우언라이가 96,600명이라고 대답한다. 송환대상 조선인 및 중국인 포로 수는 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한다. 중국정부는 중국인 20,000명을 포함한 포로

116,000명 전원의 송환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한다.....

스탈린은 그것이 옳다고 말한다.

저우언라이가 마오쩌둥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조성된 상황을 분석하면서 포로 전원의 송환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조선 측은 논란이 되고 있는 송환포로 수보다 매일 발생하는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전쟁을 지속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전쟁 중단은 미국에게 유리하다. 마오쩌둥은 전쟁 지속이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다.

스탈린은 마오쩌둥이 옳다고 말한다.⁶⁵⁾

이 대화를 보면, 북한 측이 7월 16일 스탈린과 마오쩌둥에게 미국 측의 포로 송환 제안에 대한 마오쩌둥의 견해에 동의한다는 전문을 보냈음에도, 실제로는 마오쩌둥의 견해에 결코 동의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즉 북한과 중국 사이의 포로송환 문제에 대한 이견은 8월에도 해결되지 않았다. 어쨌든 회담 석상에서 저우언라이는 김일성과 평더화이(彭德懷)를 모스크바로 초청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고, 스탈린은 긍정적인 답변을 주었다.⁶⁶⁾ 이에 따라 김일성, 박헌영, 평더화이를 포함한 8명⁶⁷⁾이 모스크바로 향했으며, 9월 4일 김일성, 평더화이와 스탈린의 회담이 개최되었다. 물론 이 회담에서도 포로송환 문제와 관련한 북한과 중국의 이견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탈린 : 미국 측과의 회담을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와 관련하여 조선과 중국 측에 일정한 이견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김일성 : 내 생각에는 근본적인 이견은 없다. 우리는 중국 동지들이 제기한 방안에 동의했다. 하지만 조선인민들이 겪고 있는 힘겨운 상황으로 인해, 우리는 조속한 휴전협정 체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중국 동지들도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⁶⁸⁾

65) '1952년 8월 20일 스탈린과 저우언라이의 대담 기록', АПРФ, ф. 45, оп. 1, л. 329, лл. 65-66.

66) '1952년 8월 20일 스탈린과 저우언라이의 대담 기록', АПРФ, ф. 45, оп. 1, л. 329, л. 71.

67) '1952년 8월 25일 저우언라이가 스탈린에게 보낸 서함', АПРФ, ф. 45, оп. 1, л. 343, л. 89.

68) '1952년 9월 4일 스탈린과 김일성, 평더화이의 대담 기록', 출처불명. 이 문서 역시 앞서의 '라주바예프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 다만 '1952년 8월 20일 스탈린과 저우언라이의

62) '1952년 7월 18일 마오쩌둥이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 АПРФ, ф. 45, оп. 1, л. 343, л. 74.

63) '1952년 7월 17일 라주바예프가 바실렙스키에게 보낸 전문', АПРФ, ф. 45, оп. 1, л. 343, л. 66.

64) '1952년 7월 17일 스탈린이 마오쩌둥에게 보낸 전문', АПРФ, ф. 45, оп. 1, л. 343, л. 69.

김일성은 북한과 중국 사이에 근본적인 이견이 없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북한이 처한 힘겨운 상황 때문에 조속한 휴전협정 체결을 원한다는 말을 통해 양국 사이에 사실상 이견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토로했던 것이다.

포로 송환과 관련한 북한과 중국의 이와 같은 견해차 역시 북한과 중국 각자의 이해관계라는 측면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8월 20일 스탈린과 저우언라이 회담에서 저우언라이는 “조선 측은 논란이 되고 있는 송환포로 수보다 매일 발생하는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전쟁을 지속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고, 9월 4일 김일성, 평터 화이와 스탈린 회담 시 김일성은 “조선인민들이 겪고 있는 힘겨운 상황으로 인해, 우리는 조속한 휴전협정 체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포로송환 협상에서 전원교환, 일괄송환이라는 애초의 공산 측 원칙과는 달리 미국 측의 자원송환 원칙이 점차 우세해지는 상황에서 북한 측은 위신의 추락을 경험했을 터였다. 하지만 송환포로 수보다 미군의 공중과 해상에서의 폭격 및 포격으로 인해 매일 발생하는 인적 손실이 더 크고, 국토와 산업시설이 황폐화되는 상황에 처한 북한 측 입장에서는 휴전협상의 마지막 단계인 포로 송환 협상을 조속히 타결해서 전쟁을 중지하는 것이 이해관계의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했다. 요컨대 북한 측은 포로송환 문제와 관련하여 전쟁의 지속을 통해 적을 압박해서 적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내는 ‘명예로운 휴전’보다는 조속한 종전을 통해 물질 인적 자원의 보존이라는 현실적 이익을 취하는 ‘실리적 휴전’을 원했던 것이다.

거기에 더해 앞서 본 바와 같이 미국 측의 포로송환 제안에 대한 마오쩌둥의 반발은 북한군 포로가 아닌 중국군 포로와 관련된 것이었다. 막대한 인적, 물질 피해를 입고 있던 북한 측 입장에서 중국군 포로 문제로 인해 보다 큰 피해를 감수하면서 전쟁을 지속하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는 일이었다.

대담 기록, АПРФ, ф. 45, оп. 1, л. 329, л. 71과 ‘1952년 8월 25일 저우언라이가 스탈린에게 보낸 서한’, АПРФ, ф.45, оп.1, л.343, л.89를 통해 스탈린, 김일성, 평터화이의 대담이 실제로 있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진본으로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반면 중국의 경우는 달랐다. 중국은 휴전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었지만, 포로송환 협상에서 불거진 송환 희망 중국인 포로와 송환 거부 중국인 포로 숫자상의 심각한 격차는 중국 측으로 하여금 전쟁의 지속을 통한 ‘명예로운 휴전’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격차는 작게는 중국과 타이완, 크게는 사회주의권과 자본주의권간의 체제경쟁에서 전자(前者)가 열세에 있음을 보여주는 유용한 증거로 선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요컨대 중국 측에게 이 문제는 군사적, 경제적 실리의 문제를 넘어 어떠한 희생도 치르더라도 반드시 지켜내야만 하는 핵심적 이익인 정치적 위신의 문제이자 이데올로기적 우열의 문제였던 것이다.

IV. 결론을 대신하여

휴전협상은 전쟁을 마무리하는 과정인 동시에 전후체제의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 당사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현재 이익과 함께 미래의 이익까지도 복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협상에 임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전쟁에서의 휴전협상은 애초부터 길고도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을 운명을 안고 있었다. 우선, 전쟁이 어느 일방의 완전한 승리로 종결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당연히 교전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설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 더해 다수의 국가가 참전했으므로 동일 진영 내부의 이해관계 조정 역시 큰 난관이었다. 물론 유엔 측은 미국이 한국과 여타 유엔 참전국들의 의지를 배제하고 사실상 미국의 독자적인 이익을 추구했기 때문에 진영 내부의 이해관계 조정이 그다지 복잡하지 않았다.

그런데 공산 측의 경우는 사정이 달랐다. 소련이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졌고, 중국이 협상전략을 수립했으며, 북한 측이 협상 실무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수직적 위계구조가 형성되었던 것과는 별도로 3국 지도자 간에 긴밀

한 대화 채널이 유지되었고, 그 채널을 통해 협상의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협의가 진행되고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긴밀한 관계는 필연적으로 3국간의 상이한 이해관계로 인한 이견과 갈등을 불러왔다.

이견과 갈등의 대상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달랐다. 앞서 본 바와 같이, 1951년 6월 교전 양측이 휴전을 모색하던 시기 공산 측 내부의 이견은 휴전의 필요성을 인식한 중국과 전쟁의 지속을 원하던 북한 사이에 있었다. 하지만 1950년 10월 중국군 참전 이래 사실상 전쟁의 주체가 된 중국의 의지가 자신의 영토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연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북한의 의지에 의해 포기될 리는 만무했다. 게다가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던 소련마저도 휴전협상에 동의함에 따라 이 이견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해결되었고, 북한 역시 휴전협상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휴전협상이 진행되면서 군사분계선 문제와 포로송환 문제에서 북한과 중국 사이에 또 다시 이견과 갈등이 불거졌다. 군사분계선으로 38도선을 고수하려는 북한 측과 이 문제에서 미국 측에 일정한 양보를 해서라도 조속한 휴전을 달성하려는 중국 측 사이의 갈등은 북한 측이 중국 측의 손을 들어 준 소련 측의 의사까지도 거스르는 행동을 한 후에야 중국 측이 의도한 바대로 결정되었다. 송환포로 문제에서는 군사분계선 문제 때와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여주는 갈등이 있었다. 북한 측은 미국 측 제안을 받아들여서라도 휴전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자 했지만, 중국 측은 전쟁을 지속해서라도 자신의 의지를 고수하고자 했다. 이 문제 역시 소련 측이 가세하여 중국 측 견해를 지지함으로써 일단락되었고, 그 후 전쟁은 1년여를 더 끌었다.

이상과 같이 휴전협상 시기 공산 3국의 견해는 전쟁의 지속 혹은 중단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보다는 각각의 개별 사안에 있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되었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동지(?)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참고문헌

- 기광서, “한국전 개입에 나타난 스탈린의 역할 실상.” 『軍史』 제63호, 2007.
- 기광서, “한국전쟁 휴전에 대한 공산측 지도부의 입장.” 『梨花史學研究』 제46집, 2013.
- 김계동, “한국전 휴전협상의 추진배경 연구: 전선의 안정과 정치적 결말 모색.” 『한국군사』, 1권, 1995.
- 김보영, “한국전쟁 휴전회담 연구.” 한양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8
- 김전숙, “한국전쟁의 휴전회담에 관한 연구: 쌍방의 협상기법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2.
- 김성희, “한국전쟁의 휴전회담에 관한 연구: 쌍방의 협상기법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2.
- 박영실, “정전회담을 둘러싼 북한중국 갈등과 소련의 역할.” 『현대북한연구』 14권 3호, 2011.
- 신복룡, “한국전쟁 휴전협정의 비밀 협상에 관한 연구: 미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21집 2호, 1987.
- 沈志華, “소련과 한국전쟁: 러시아 비밀해제 당안 속의 역사 진상.” 『현대북한연구』 3권 1호.
- 양진삼(梁鎭三), “전쟁기 중국지도부와 북한지도부 사이의 모순과 갈등.”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 여용덕, “휴전회담과 포로 교환.” 『전쟁문학』 제27집, 2007.
- 와다 하루키 지음 서동만 옮김, 『한국전쟁』, 창작과 비평사, 1999.
- 이병태, “6·25전쟁의 휴전회담 과정 고찰.” 『전쟁문학』 제21집, 2005.
- 양쿠이송(楊奎松), “중국군의 정전협상 전략.”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 이병주, “共產軍側과 韓國戰爭 停戰會談 - 스탈린, 마오쩌둥의 協商指導와 目標의 차이점.” 『戰史』 제5호, 2003.
- 조성훈, “미국 자료를 통해 본 휴전협상의 지연 요인 연구: 포로 문제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통권 79호, 2000.
- Chen Jian, *Mao's China and the Cold War*. Univ. of North Carolina Press, 2001
- Chen Jian, “The Armistice That was not Beijing's First Choice: Revisiting China's Strategies to End the Korean War.” 한국전쟁 정전60주년 국제학술회(고려대

학교 역사연구소, 2013.7.27.).

Record of Events, Eleventh Session, Conference at Kaesong, Korea, on the Armistice Proposal(1951.07.27.), United Nations Command, Korean Armistice Negotiation.

Record of Events, 104th Session, 78th Meeting at Pan Mun Jom, Military Armistice Conference 1952.07.13.

러시아연방 대통령문서보관소(АПРФ) 한국전쟁 휴전협상 관련 사료.

러시아연방 대외정책문서보관소(АВПРФ) 한국전쟁 휴전협상 관련 사료.

A.B. Торкунов, Загадочная война: корейский конфликт 1950–1953 годов(수수께끼의 전쟁: 한국분쟁 1950~1953년). M., РОССПЕН, 2000.

Правда(프라브다).

ABSTRACT

Internal Conflict among the Communist States during the Period of the Korean Military Armistice Conference

Lee, Jae-Hoon(DongKook University)

This article clarifies disagreement and conflict among Stalin, Mao Ze Dong and Kim Il Sung in the period of Korean Military Armistice Conference, using the materials of Russian Archives. Disagreement and conflict had mainly occurred between Mao Ze Dong and Kim Il Sung. In the period of seeking a cease-fire, internal disagreement among the communist side occurred between Mao Ze Dong, who recognized the need for the cease-fire, and Kim Il Sung, who wanted to continue the warfare. On the other hand, In the period of Military Armistice Conference Conflict had occurred again between North Korea and Mao Ze Dong's China with respect to set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and exchange the prisoners of war.

However since Chinese troops committed the war, China had taken over leading role toward the war and North Korea had to play the adjuvant role, even though the war was going on in the North Korea's territory. Furthermore, the Soviet Union also supported the China's intention. As a result, China's intention naturally overwhelmed North Korea's willingness. Therefore from the beginning the Korean Military Armistice Conference forced on the interest of Soviet Union and China, and North Korea's interest was not the subject of consideration.

Keywords : Korean War, Military Armistice Conference, Stalin, Mao Ze Dong, Kim Il Sung, disagreement, conflict

투고일: 2013년 10월 22일, 심사일: 2013년 11월12일, 게재확정일: 2013년 12월 09일